

轉形問題의 最近 解法에 대한 檢討*

柳 東 民**

논문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간단한 숫자예를 이용하여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문제에 대한 최근의 해법들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해법이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며, 전형문제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최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非쌍대체계적 해석'에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개념과 투하노동량 간의 관계가 정합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핵심주제어: 노동가치론, 전형문제, 非쌍대체계적 해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4

I. 문제 제기

이 글에서 필자는 3부문모형의 간단한 숫자예를 이용하여 맑스적인 노동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문제에 대한 최근의 해법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해법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분명해질 것이며, 전형문제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검토대상은 뒤메닐-폴리-리피에츠(Duménil-Foley-Lipietz)의 이른바 '新해법'(New Solution), 최근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된 Lee(1993)와 Roberts(1997) 등의 세 가지 해법이다. 이 글의 일차

*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Bruce Roberts는 e-mail 교환을 통해 자신의 견해에 대한 필자의 숫자예를 다듬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남아 있을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적인 목적이 세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지는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부문 모형을 설정하자. 여기에서 C_i , V_i , S_i 는 각각 i 부문의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를 나타낸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I, II, III은 각각 생산재, 임금재 및 사치재 생산부문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각 변수는 동질노동을 가정한 상태에서 노동시간단위로 측정된 것이므로, <표 1>은 투하노동량체계를 나타낸다.¹⁾

<표 1> 투하노동량체계

$$\text{I. } 225 C_1 + 90 V_1 + 60 S_1 = 375$$

$$\text{II. } 100 C_2 + 120 V_2 + 80 S_2 = 300$$

$$\text{III. } 50 C_3 + 90 V_3 + 60 S_3 = 20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표 1>과 같은 체계로부터 가치와 가격, 그리고 잉여가치와 이윤에 관한 두 가지 집계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생산가격체계를 도출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식논리적으로 말해서 다음의 방정식체계 (1) ~ (5)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과잉결정(overdetermined)되어 있는 것이다.

$$(225x + 90y)(1+r) = 375x \quad (1)$$

$$(100x + 120y)(1+r) = 300y \quad (2)$$

$$(50x + 90y)(1+r) = 200z \quad (3)$$

$$375x + 300y + 200z = 875 \quad (4)$$

$$(375x + 300y)r = 200 \quad (5)$$

여기에서 x , y , z , r 은 각각 I, II, III 부문의 가치-가격비율 및 일반이윤율을 나타낸다. 식(4)는 총가치와 총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식(5)는 총잉여가치와 총이윤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1) 이 숫자에는 비교를 위해 Glick and Ehrbar(1987)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 숫자에가 반드시 단순재생산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II. 뒤메닐-폴리-리피에츠의 해법

뒤메닐-폴리-리피에츠의 이른바 ‘新해법’에서는 가변자본의 가치를 화폐임금지불액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집계조건은 총(gross) 생산물이 아닌 순(net) 생산물에 관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받아들이면 수정된 두 가지 집계조건은 사실상 항등식으로 전환되어 버리며, 따라서 전형문제도 사라져 버린다.

뒤메닐-폴리-리피에츠의 해법은 맑스적인 가치와 가격 간의 연관이 논의되는 지형자체를 변화시켰다. 특히 그것은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가치론의 미시적 측면, 즉 균형가격을 설명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이들이 개발한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라든지 ‘화폐의 가치’ 등과 같은 개념은, 경제량의 집계라는 거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케인즈의 ‘임금단위’(wage-unit)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²⁾

뒤메닐-폴리-리피에츠는 개별상품의 가치와 가격 간의 미시적 관계는 분석하지 않으며, 다만 거시적 관계를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항등식을 제시하는데, 이는 결국 하나의 식으로 환원된다.

$$90 V_1 + 120 V_2 + 90 V_3 = 300 \quad (6)$$

$$90 V_1 + 120 V_2 + 90 V_3 + 60 S_1 + 80 S_2 + 60 S_3 = 500 \quad (7)$$

Glick and Ehrbar(1987)는 Shaikh(1977)의 축차적 접근법(iterative method)을

2) 케인즈는 “고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노동단위(labour-unit)”라 부를 때, 임금단위는 “노동 1단위에 대한 화폐임금”이라 정의한다(Keynes, 1973, p. 41). 더욱이 그는 각 노동이 받는 화폐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질적인 노동을 동질노동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통임금률의 2배가 되는 한 시간의 특수노동은 노동 2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Keynes, 1973, p. 41). 그러므로, 케인즈의 임금단위는 ‘新해법’에서 제시하는 노동력가치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W와 N이 각각 임금총액 및 노동시간으로 측이 각정된 고용량을 나타낸다면, 케인즈의 임금단위(ω)는 $\omega = \frac{W}{N}$ 으로 표현된다. 한편, Y와 P가 각각 총부가가치와 총이윤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른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E)은 $E = \frac{Y}{N} = \frac{P+W}{N}$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노동력가치(VLP)와 임금단위 간의 관계는 $VLP = \frac{W}{\omega + \frac{P}{N}}$ 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응용하여, '新해법'의 논리에 충실한 생산가격체계를 <표 1>로부터 도출하였다. <표 2>의 각 변수들은 화폐단위로 측정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P_i 는 i 부문의 이윤을 나타낸다. Glick and Ehrbar(1987)는 실제로는 서로 다른 배분 원리를 따르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전형과정에서 화폐임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표 2> 생산가격체계 (新해법)

$$\text{I. } 279.8 C_1 + 90.0 V_1 + 96.5 P_1 = 466.3$$

$$\text{II. } 124.3 C_2 + 120.0 V_2 + 63.8 P_2 = 308.1$$

$$\text{III. } 62.2 C_3 + 90.0 V_3 + 39.7 P_3 =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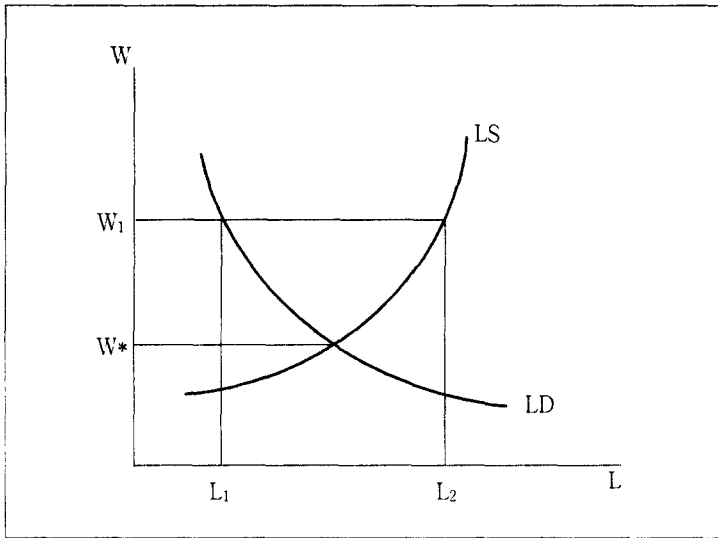
<표 2>는 (1) ~ (5)에서 (4)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체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즉, 뒤메nil-폴리-리피에츠의 해법은 총잉여가치와 총이윤이 같다는 조건인 (5)식을 일종의 척도재(numéraire)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新해법'은 —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 노동시장의 상태에 대한 특정한 관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맑스의 경제학에서 균형개념이 수행하는 이론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맑스 자신이 노동시장의 청산(clearing)을 '균형'의 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즉, 맑스의 체계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였다.³⁾ 그렇지만, 적어도 『자본론』에서는, 맑스는 노동시장의 작용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시장의 작용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맑스의 서술은 노동시장의 불청산이라는 조건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힘들은 작용하지 않게 되고 서로 상쇄되어 버리며 (...); 이 경우에는 시장가격은 지금 당장의 형태에서도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면, 그들의 작용은 상쇄되며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와 동등하게 된다. (Marx, 1981, p. 478: 강조는 인용자)

3) 그것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착취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Bowles and Gintis(1993)의 이른바 '부족側 권력'(short-side power)은 노동시장에서 항상적인 초과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림 1〉



즉,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시장균형에서의 임금수준과 상대적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임금수준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므로, 前者만을 노동력 가치에 대응되는 수준의 임금률로 간주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가치법칙을 위배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

〈그림 1〉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고용량(L)과 임금수준(W)을 나타내며, LD와 LS는 각각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청산을 보장하는 균형임금 W^* 만이 노동력가치와 동등한 임금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과잉인구론에 따르면, 예컨대 임금이 W_1 수준에 있어서 L_1 L_2 만큼의 실업이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어떤 비정상적인 형태의 곡선을 상정하지 않는 한, W_1 은 노동력 가치를 상회하는 임금수준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新해법’은 명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새로이 정의된 노동력 가치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표 1〉과 〈표 2〉에서, 각 부문의 가변자본의 전형계수는 1인바, 이는 노동시장의 청산 여부가 노동력 가치의 임금으로의 전형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

Ⅲ. 非쌍대체계적 해석

1. 이채언(Lee, 1993)의 해법

애초에 보르트키비츠(Bortkiewicz)에 의해 전형과정의 논리적 문제가 지적된 맥락은, 불변 및 가변투입요소 자체가 이미 전형된 상태에서 시장을 통해 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치가 아닌 생산가격으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 ~ (3) 식의 좌변에서 전형계수 x , y 가 각각 곱해져 있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우 두 가지 집계조건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 투입요소에 전형계수를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일 수만 있다면, 『자본론』에 제시된 전형과정은 수정될 필요도 없고 틀린 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형논쟁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Carchedi (1984)와 같이, 실제로 이러한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체계적으로 발전된 것이 Freeman and Carchedi eds. (1996)에 실린 논문들인데, 그 저자들은 스스로를 '非쌍대체계적 해석'(non-dualist interpretation)이라 명명하였다. 이 채언의 해석은 이른바 '非쌍대체계적 해석'의 하나이다.⁵⁾

'非쌍대체계적 해석'은 불변투입물의 가치 또한 그 생산가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가치와 생산가격이 쌍대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체계'(single-system)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바꾸어 말하면, 뒤메nil-폴리-리피에츠가 가변자본을 취급한 방식은 그대로 불변자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는 전통적인 방식처럼 $\lambda = \lambda A + 1$ 이 아니라, $\lambda = pA + 1$ 로 표현된다. 단, 여기에서 λ , p , A , 그리고 1은 각각 가치벡터, 생산가격벡터, 사회-기술적 투입계수행렬, 그리고 노동투입벡터이다.⁶⁾ 최근에는 '新해법'의 주창자 중의 하

4) 이러한 절차의 논리적 근거는 모훈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강조된 바 있다. "따라서, 노동력을 그 화폐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형되어야 하며 그 투입구조 또한 전형되어야 하도록 요구하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 노동력은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의 (재)생산을 통해 얻어야 하는 평균이윤율이란 없기 때문에, 가치도 노동가치도 전혀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Mohun, 1994, p. 401). 또한 이와 유사한 논의로는 류동민(1994, pp. 352~5)도 참조하라.

5)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예컨대 Ramos and Rodriguez(1996)의 해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6) 그들 중의 일부, 가령 Kliman and McGlone(1999)은 불변투입물의 가치가 생산가격이 아니

나인 폴리조차 이러한 해석을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Foley, 1997, p. 49).

Lee(1993)에 따르면, <표 1>과 같은 투하노동량체계에 대응하는 생산가격체계는 <표 2>와 같이 얻어진다. 그러나, 그의 가치 개념은 전통적으로 정의된 방식과는 다르다. <표 2>는 이윤율과 생산가격의 동시적인 결정을 전제하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체계를 이용하여, 즉 전형적인 '쌍대체계적' 방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여기에서 e 는 잉여가치율을 나타낸다. (8) ~ (10) 식에서 두번째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잉여가치율의 균등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11) 식에서 잉여가치가 200이 아니라 $200y$ 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데, 그것은 Lee(1993)가 임금재벡터를 d 라 할 때, 잉여가치를 $epdl$ 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225x+90y)(1+r) = [225x+90y(1+e)]x = (225x+150y)x \quad (8)$$

$$(100x+120y)(1+r) = [100x+120y(1+e)]y = (100x+200y)y \quad (9)$$

$$(50x+90y)(1+r) = [50x+90y(1+e)]z = (50x+150y)z \quad (10)$$

$$(375x+300y)r = 200y \quad (11)$$

식(8) ~ (11)은 선형연립방정식체계는 아니지만, 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非쌍대체계적 해석'에서는 실제로는 가치체계가 아니라 생산가격체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표 2>에서 총임금지불액과 총이윤은 각각 300, 200이므로, 경제 전체의 잉여가치율은 이윤-임금비율($=\frac{200}{300}$)과 일치한다. 더구나, 가치가 $\lambda = pA+1$ 로 정의되므로, 불변자본의 가치도 <표 2>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非쌍대체계적 해석'에서의 가치체계는 <표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표 3> 가치체계 (Lee's)

$$\text{I. } 279.8 C_1 + 90.0 V_1 + 60.0 S_1 = 429.8$$

$$\text{II. } 124.3 C_2 + 120.0 V_2 + 80.0 S_2 = 324.3$$

$$\text{III. } 62.2 C_3 + 90.0 V_3 + 60.0 S_3 = 212.2$$

라 실제로 구입된 시장가격으로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들은 생산가격 정의를 고수하는 기존의 '非쌍대체계적 해석'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異時的-단일체계(temporal single-system) 해석'이라 불린다. 그러나,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를 가격범으로 계산할 것을 주장한다는 맥락에서는 Lee(1993)의 연장선상에 있다.

〈표 2〉와 〈표 3〉의 유일한 차이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분배원리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가치에 대해서는 가변자본에 비례하는 분배원리가 적용되는 반면, 생산가격은 총투하자본에 비례하는 분배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맑스의 두 가지 집계조건은 동시에 충족된다.

‘非쌍대체계적 해석’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표 1〉과 〈표 3〉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다.⁷⁾ 말하자면, ‘非쌍대체계적 해석’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Lee(1993)는 〈표 1〉을 〈표 3〉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표 3〉은 〈표 1〉에 대한 아무런 참조 없이 〈표 2〉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다. 사실 〈표 3〉이 〈표 2〉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한, 식(8) ~ (11)은 일종의 가공적인 체계인 셈이다.⁸⁾

더구나, 非쌍대체계적 가치 개념은 시장청산이라는 균형조건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각 부문의 불변자본의 전형계수가 1이라는 사실로부터 자명하다. 그런데 이는 ‘非쌍대체계적 해석’의 가치 정의식 $\lambda = pA + 1$ 과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생산가격(p)이란 시장청산을 전제하는 일종의 장기균형개념이기 때문이다.⁹⁾

2. Roberts(1997)의 해석

Roberts(1997)는 맑스적 특성을 충족하도록 가치를 정의하려면 $\lambda = pA + 1$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非쌍대체계적 해석’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투하노동량과 가치 간의 관계라는 문제를 명시적으

7) Lee(1990)는 Shaikh(1977)의 축차적 접근법을 응용하여 투하노동량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개념에 도달하는 이론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크식의 과정은 상호독립적인 두 체계를 설정하고 있는 셈이므로, ‘非쌍대체계적 해석’의 방법론 그 자체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8) 물론 〈표 2〉는 ‘新해법’ 고유의 解인 셈이므로 Lee(1993)의 가치체계가 〈표 2〉와 대응될 이유는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동일한 숫자例를 통해 이들 해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실제로는 어떤 생산가격체계가 주어지더라도 〈표 2〉에서 〈표 3〉으로 가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가치체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9) 이러한 의미에서 ‘非쌍대체계적 해석’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균형개념도 거부하는 ‘이시적-단일체계 해석’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맑스의 생산가격개념이 스미스나 리카도의 자연가격과 마찬가지로 장기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임을 논증한 것으로 Moseley(1999)를 참조하라.

로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의 가치[非쌍대체계적 해석의 가치개념 — 引用者]는 각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투하된 총노동의 표현은 아니다. (...) 그러므로 도대체 여기에 '투하된 노동'이라는 전통적인 관념 중의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당하다. (Roberts, 1997, p. 492)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非쌍대체계적 해석'에 속하는 論者들 중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볼 만한 의의가 있다.

로버츠는 그의 가치 개념을 투하노동량과 관련짓는 이론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Omega = (\frac{1}{v_x})x_p$ 으로 정의되는 '재배분행렬'(reallocation matrix) Ω 를 도입한다.¹⁰⁾ 가상의 경제(hypothetical economy)는 표준적인 기술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것은 실제 기술 $(A, 1)$ 에서 사용되는 생산수단 및 노동의 총량과 정확하게 동일한 양을 흡수하는 가상적인 표준기술 $(A\Omega, 1\Omega)$ 로 특징지어진다. 로버츠의 수학적 표현을 적용하면, <표 1>에 대응되는 가상적인 상태를 도출할 수 있다. <표 2>와 <표 3>을 이용하여, '재배분행렬' Ω 의 원소에 대응되는 각 부문의 계수(ω_i)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966.3은 경제 전체의 총생산가격을 나타낸다.

$$\omega_1 = \frac{466.3}{966.3} = 0.4826$$

$$\omega_2 = \frac{308.1}{966.3} = 0.3188$$

$$\omega_3 = \frac{191.9}{966.3} = 0.1986$$

그러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계에다가 $\omega_1, \omega_2, \omega_3$ 를 곱함으로써 로버츠가 말하는 경쟁가격체계를 <표 4>와 같이 얻는다. 로버츠는 이 경쟁가격이 일종의 투하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10) 여기에서 v, p , 그리고 x 는 각각 전통적인 집계조건을 포함한 맑스적 특성을 충족하는 가치벡터 및 경쟁가격벡터, 그리고 총산출량벡터를 나타낸다. Ω 는 직관적으로는 총생산물의 생산가격합계에서 각 부문생산물의 생산가격합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한다.

〈표 4〉 경쟁가격체계 (Roberts의 가상적 경제)

$$\text{I. } 225.04 C_1 + 144.78 V_1 + 96.52 P_1 = 466.34$$

$$\text{II. } 148.66 C_2 + 95.64 V_2 + 63.76 P_2 = 308.66$$

$$\text{III. } 92.61 C_3 + 59.58 V_3 + 39.72 P_3 = 191.91$$

흥미로운 사실은 〈표 4〉가 각 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전통적인 노동가치론에서 두 가지 집계조건을 충족하는 특수한 경우 중의 하나인 셈이다. 한편 여기에서 가치는 실제로 고용된 생산수단에 투하된 평균노동에다 실제로 수행된 직접노동에 의해, 추가된 가치를 합한 것으로 표현된다(Roberts, 1997, p.496). 즉, A^* , I^* 가 각각 AQ , IQ 를 의미한다고 할 때, 가치와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ambda = pA + I \quad (12)$$

$$p = pA^* + I^* \quad (13)$$

로버츠는 가상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업들의 총체로 이루어진 각 산업의 수준에서 얻어진 평균생산조건의 계산을 여러 산업들의 총체로 구성되는 전체 생산과정의 수준으로 확장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Roberts, 1997, p.497). 즉, 그것은 맑스의 『자본론』 제1권의 추상수준에서 제3권의 추상수준으로의 이론적인 이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로버츠는, ‘가상적 경제’를 도입한 뒤에, 전형과정이란 전통적인 가치표현 $\lambda = 1[I - A]^{-1}$ 를 가상적 기술이 지배하는 상태에서의 투하노동량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는 생산가격으로 전형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인 가치계산에 해당되는 〈표 1〉이 〈표 3〉 또는 〈표 4〉로 전형되는 과정은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필자의 견해는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 해석하자면, ‘非쌍 대체제적 해석’의 가치 개념은 이윤율균등화까지 고려한 추상수준에서 정의되는 것

11) “... [이들 -- 인용자] 가격은 투하노동의 ‘평균’량, 즉 만약 모든 산업이 생산의 집계적 물적 조건으로 표현한 평균상태에 있다면 얻어질 투하노동의 양이라 생각할 수 있다”(Roberts, 1997, p.495).

이라 할 수 있다. 강남훈(1995)에 따르면, <표 1>과 <표 3>은 각각 『자본론』 제1권과 제3권 수준에서의 가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변자본부분은 시장에서 구입된 것이므로, <표 1>의 C_i 는 동일한 계수를 곱해줌으로써 <표 3>의 C_i 로 전형되어야 한다. 이 글의 숫자예에서 그 계수는 $\frac{279.8}{225} = \frac{124.3}{100} = \frac{62.2}{50} \approx 1.2435$ 이 될 것이다.

로버츠가 제시한 ‘가상적’ 투하노동체계는 모든 부문간에 생산조건이 평균화되었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그것은 생산조건의 부문내 격차는 물론 부문간 격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본론』 제3권의 추상수준에서의 투하노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 그대로 가상적이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노동가치가 될 것이다.

한편, 로버츠의 경쟁가격은 이념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시장의 청산여부와는 무관하다. 사실, 그의 가상적 체계는 상호독립적인 두 체계간의 사상(mapping)을 설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쌍대체계적인 해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IV. 맺음말

‘非쌍대체계적 해석’의 공헌 중의 하나는 『자본론』에서의 이론적인 결과를 그대로 재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¹²⁾ 맑스의 전형과정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투하노동량과 새롭게 정의된 가치개념 간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노동시장과 다른 시장을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함으로써 가치 개념과 시장균형 간의 관계는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다.

로버츠의 해석은 ‘非쌍대체계적’ 가치 개념과 투하노동 간의 연관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의 새로운 점은 ‘非쌍대체계적’ 해석에서의 생산가격 개념에 대해 투하노동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려 시도한 데에 있다. 그렇지만, 그가 실제로 수행한 것은 <표 1>과 <표 3>의 관계를 <표 2>와 <표 4>의 관계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이론체계 내에서 <표 1>과 <표 3>의 관계는 여전히

12) 그러므로, Laibman (1996)은 이들을 ‘새로운 정통파 맑스주의’(new orthodox Marxism)라고 부른다.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필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非쌍대체계적' 해석의 가치 개념이 전통적인 투하노동 개념과 양립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밝히고자 시도한 바 있다. 특히, 이 글에서와 같은 3부문 모형에서는, 양립가능성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생산부문 간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V_i + P_i$)에 대한 불변자본(C_i)의 비율이 부문간에 동일한 경우이다(Rieu, 1997, pp. 85~8). 로버츠의 가상적 경제는 스라파의 표준체계와 유사한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두 가지 특수한 경우의 혼합물로 해석된다.

노동가치론에 대해 가해진 비판은 크게 보아 그것이 비정합적이라는 것('inconsistency critique')과 가치개념이 불필요하다는 것('redundancy critique')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Lee(1993)로 대표되는 '非쌍대체계적 해석'은 가치의 정의식 내에 가격됨을 삽입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어도 전형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정합성의 문제는 일단 해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동시에 가치와 가격의 개념적 차이를 희석화함으로써 '불필요성 비판'에 대해서는 더욱 대처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非쌍대체계적' 이론은 가격이 어떻게 투하노동에 의해 규제되는지(심지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¹³⁾ 그것은 로버츠의 경우에서처럼, 가격과 인위적인 구성물로 이해된 투하노동량 간의 약한 연관을 설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새롭게 정의된 가치 개념과 투하노동량 간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는 한, '非쌍대체계적' 이론은 가치 개념이 '불필요한 우회'(unnecessary detour)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고전학파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전형문제에 대한 논의를 노동가치론의 정립과 그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분석이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결짓기 위해서는 뒤메닐-폴리-리피에츠 해석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가치-가격의 미시적 연관을 더욱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최근 해법들의 내적 논리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13) 물론 가치(또는 투하노동량)가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실제행위에 있어서 매 개변수(parameter)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제주체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가격일 뿐이며, 어떠한 의미에서의 균형가격도 아닐 것이다.

■ 參考文獻

1. 강남훈, “전형과정의 두 가지 문제: 불변자본의 재생산과 리카도적 편향”,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논문집, No. 9509, 1995.
2. 류동민, “가치와 가격의 양적 연관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제33권 제3호, 1994.
3. Bowles, S. and H. Gintis, “The Revenge of Homo Economicus: Contested Exchange and the Revival of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1, 1993, pp. 83~102.
4. Carchedi, G., “The Logic of Prices as Values”, *Economy & Society*, Vol. 13, No. 4, 1984.
5. Foley, D. K.,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ur Theory of Value”, paper presented at the 4th mini-conference of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Value Theory, Washington DC, 1997.
6. Freeman, A. and G. Carchedi(eds.), *Marx and Non-equilibrium Economics*, Edward Elgar, 1996.
7. Glick, M. and H. Ehrbar, “The Transformation Problem: An Obituary”, *Australian Economic Papers*, Vol. 26, No. 49, 1987, pp. 294~317.
8.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1973.
9. Kliman, A. and T. McGlone, “A Temporal Single-system Interpretation of Marx's Value Theory”,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 11, No. 1, 1999.
10. Laibman, D., “Rhetoric and Substance in Value Theory: An Appraisal of the New Orthodox Marxism”, paper presented at the 3rd mini-conference of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Value Theory, Boston, 1996.
11. Lee, C. O., “On the Three Problems of Abstraction, Reduction and Transformation in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Ph. 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90.
12. ———,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Revisite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7, 1993, pp. 463~78.
13. Marx, K., *Capital*, Vol. 3, Penguin Books, 1981.
14. Mohun, S., “A Re(in)statement of the Labour Theory of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8, 1994, pp. 391~412.
15. Moseley, F., “Marx's Concept of Prices of Production: Long-run Center-of-gravity Prices”, paper presented at the 6th mini-conference of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Value Theory, Boston, 1999.
16. Pasinetti, L. L., *Lectures on the Theory of Production*, Macmillan, 1977.
17. Ramos, A. and A. Rodriguez, “The Transformation of Values into Prices of Production: A Different Reading of Marx's Text”, in A. Freeman and G. Carchedi(eds.), *Marx and Non-equilibrium Economics*, Edward Elgar, 1996, pp. 49~76.
18. Rieu, D.-M., “A Note on the So-called 'Double Counting' Problem in the Transformation Procedure”,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No. 1, 1997, pp.

83~91.

19. Roberts, B., "Embodied Labour and Competitive Prices: A Physical Quantities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1, 1997, pp. 483~502.
20. Shaikh, A., "Marx's Theory of Value and the Transformation Problem", in J. Schwartz (ed.), *The Subtle Anatomy of Capitalism*, Goodyear Publishing, 1977.